

브라질, 페트로브라스 투자 축소

■ 지난 6월 29일 브라질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(Petrobras)¹⁾는 2015~19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37% 축소하겠다고 발표

- 당초 계획은 2018년까지 약 2,068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었으나, 최근 계획을 수정하여 2015~19년 기간 동안 투자금액을 1,303억 달러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함.
- 특히 투자가 줄어드는 분야는 신규 유전 탐사와 생산으로, 2020년까지 석유생산을 일일 평균 4.2백만 배럴을 달성하는 것이 초기의 목표였으나 일일 2.8백만 배럴로 축소함.

■ 투자 축소는 최근의 경영악화와 비리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

- 전 룰라 대통령 정부(2003~11)와 현재의 지우마 정부(2011~)가 석유산업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함.
 -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심해유전개발을 확대하고, 신규 정유공장을 다수 건설하며,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는 페트로브라스를 통해 석유가격 보조금을 지급함.
 - 부채는 2005~07년 사이 210억 달러였으나 2014년 말 1,320억 달러로 급증하였고, 자본지출은 2000~2013년 사이 13배 가까이 증가함.
 - 영업이익 대비 부채 비중이 2013년 3.5에서 2014년 4.77로 증가했는데, 이는 전 세계 석유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임.
- 대형 건설업체들이 페트로브라스의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하고, 뇌물 중 일부가 주요 정당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브라질 최대의 비리 사건이 발생함.
 - 페트로브라스 비리사건은 브라질에 만연한 부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며, 집권 정당의 정책 실행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.
 - 집권초기 지우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70%를 상회하였으나, 최근 7월의 여론조사에서는 15.3%로 급락함.
- 국제신용평가사는 페트로브라스의 신용등급을 2015년 초 투자부적격등급으로 강등함.
 - 지난 2월 24일 무디스는 비리 사건과 유동성 압박 등의 이유로 페트로브라스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투자부적격등급인 Ba2로 두 단계 강등함

■ 페트로브라스의 투자 감소는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

1) 페트로브라스(Petrobras)는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2013년 기준으로 수익은 1,300억 달러이고 고용자 수는 약 8만 6천명임.

- 페트로브라스의 투자는 브라질 단일 기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, 해당 기업의 투자는 관련된 건설기업과 에너지 기업, 기계 장비 기업 등의 생산 감소로 이어짐.
 - 페트로브라스를 포함하여 연관된 기업의 경제규모는 GDP의 약 10%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.
- 2014년 기준으로 페트로브라스의 매출은 브라질 GDP의 약 6%에 가깝고 자본지출은 브라질 전체 투자의 약 8%에 달함.

■ 페트로브라스 비리와 경제의 성장을 둔화로 인한 투자저조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- 지우마 대통령은 지난 6월말 미국을 방문하고 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7월에 워싱턴과 뉴욕 등을 방문하며 투자자들을 만나고, 과거보다 투자유치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.
- 그러나 페트로브라스 비리 수사가 최소 2015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,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 - 2014년 GDP 성장률은 0.1%였으며, 2015년에는 -1.1%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.

참고자료: Oxford Analytica, EIU Viewswire, Wall Street Journal 등

박미숙 (KIEP 미주팀 전문연구원)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동향세미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